

# 교육자로서의 수간호원

이      미      자

미국대사관 의무실

일생을 간호원으로 봉사하며 살기위해 공부하는 학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병실에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부분의 경우엔 병실 실무를 담당하며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있는 수간호원이 지도를 하게 되므로 학생들에게 간접적이며 또한 직접적인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학교가 병원에 부속되어 있을때나 혹은 단독일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왜냐하면 간호교육이란 실습을 통해야만 습득되어지는 특수기술의 연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간호원은 학교방침이나 병원행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이 의무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가르치게 마련인 것이다. 물론 학생들의 임상간호교육을 위해 선생이 같이 다니며 가르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역할이 만족치 못함은 첫째 그 數的인 문제요, 둘째 아직 그 교육이 初創期에 있음인지 本軌道에 오르지 못했음이요, 셋째로 선사 上記條件을 다 具備하고 있더

라도 그들이 병실에서 학생실습할 때마다 같이 언제나 있을 수 없다는 黑等이다. 그런고로 수간호원이 학생실습에 중요한 教育部門을 담당하게 될은 쉽게 수긍되어진다.

그러나 수간호원이 全的으로 학생 실습 責任 내지 교육한다는 것과 임상간호선생과 협력한다는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即 이 두 선생이 協力을 하면 실습面에나 教育面에 効果의 結果를 거둘수 있는 것이다. 특히 수간호원이 학생들의 실습시간을 요령있게 짜주므로서(수간호원의 책임이라면) 공부하는것과 併行하도록 한다면 더욱 좋을것이다.

수간호원은 훌륭한 지도자이며, 모범적인 존재이다.

간호실습을 교육하는데 必要한 과제와 내용은 항상 의학과 그와 관련된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변한다. 수간호원은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로는 창조적인 간호실습의 의견을 이런面에서 줄 수 있을것이다. 선생은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주는데 있어서 자기의 옛 사고방식

과 적당치 않았다고 생각되는 교육방법 또는 그 내용을 시정할 신축성 있는 태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며 이러므로서 발전하고 변해가는 기술이나 과학적인 방법등을 잘 소화하여 자기것으로 할 수 있을것이며 따라서 학생들의 강의와 실습을 받아들이는 内容과 吸收力도 넓어지고 많아질것이다. 수간호원은 학생들을 실습시킬 때 그들이 배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이해했기를 바랄 수는 없음을念頭에 두고 最少限 항상 많이 쓰여지는 기술이나 방법등을 몇 번씩만이라도 반복하여 익힐수 있도록 해야 할줄 안다. 또한 다소 자주 쓰이지 않는것이라 해도 한 두번쯤 실습하게 하므로서 모든 경우에 낯설지 않게 해줌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구가 없다거나 시설이 미비한 곳이라면 선생이 강의 시간에라도 가르치고 그림이라도 보여 주므로서 전혀 무뢰한이 되는 것은 피해줌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졸업후에 무엇을 전공할지를 결정하게 되며 이때 수간호원은 놀라울정도 의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明白하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가장 가까웠던 지도자기 때문이다.

▲수간호원은 의사의 치방을 처리하고 시행하는데도 여러 方法과 要領을 가르쳐 줄 수 있다. 학생들

은 배우고 보므로서 그들 자신의 판단력과 시행력을 기르게 됨은勿論이다. 환자치료 및 간호를 하는데나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도 각 환자 환자마다의 경우와 진단 및 필요사항을 잘 아는 수간호원은 학생들에게 더 적절하고 구체적이며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方法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러한 교육 실습 과정을 통해 수간호원은 학생들의個人發展상황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그들의理解力과 實習面의 能力を 푸렷이 보게된다. 많은 학생들은 상당한 數의 일들을 理解하기는 고사하고, 存在與否조차 인식 못하며 지나는 수가 많으니 이는 그들의 주의력과 판찰력의 부족이 原因도 되겠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그들이 병실마다 바꾸이는 환경에 적응이 잘 안되어 익숙지 못한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스스로 발견하여 배운것을 응용하여 불려고 할 때쯤 되면 벌써 주위 사람들이 하는 보통 습관에 물들어져 있는 뒤가 혼하다. 이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배우는 것과 병실에서의 실습이나 또는 기구등이 다른때가 많음으로서 生기는 비근한 例인 것이다. 이러한 차질을 원만히 해결하고 수정하는 方法의 하나로는 어떠한 실습과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떤 特定한 공식 하나만을 세워놓고 거기에 너무 집착시킬게 아니라 항상 變해가는 여러 요소들을 잘 균

형첩으면서 융통성있게 일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各者의 機能과 義務의 差異에 따라 變해가고 發展하는 要素들을 적절히 消化하여 자기것으로 적응해 나감이 그 根本的인 解決策의 하나일 것이다.

▲ 수간호원은 다른 출업간호원과 또 팀(team)지도자와는 다르다. 어떤 병실의 수간호원이 된다함은 출업간호원과 팀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행정과 교육을 담당하는 重責任者이며 이에 따라 높은 指導力を 必要로 한다. 即 그 병실 간호원들로 하여금 각각 분배받은 일들을 수행토록 지시하고, 감독하는 일, 어떤 전설적인 의견이 나오면 그를 받아들여 現實에 적합하도록 응용하는 일, 각 간호원들의 필요한 일들과 항상 변화 발전해가는 요소를 정력을 가지고 창조적인 태도로 일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조건이 구비되면 모든 직원들이 협동하여 일하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러므로서 환자 간호 및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적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각 직원, 간호원들이 하는 그 일의 重要性과 責任을 느끼므로서 能率의인 일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각者の 容觀의인 블만이나 긴장 초조 모순등을 自由로이 이야기 할 수 있게 하므로 시정할것도 생기고反省할일도 生기므로서 進步를 보게되는 것이다. 勿論 학생들도 같

은 혜택을 받을것이며 더욱 공부할 마음과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다. 自然的으로 이런 분위기에서는 학생들이 자기들의 하는 일이 勞動力의 提供이 아니라 實習이란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교육적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서 數年間 研究해오던 學生 實習의 教育的 價值 評價를 높게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실습이 완전히 교육의 한 부문이 됨을 立證할 수 있는 것이다. 실습하는 동안 학생들은 수간호원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오는 존경심도 갖게되고 또 비판도 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자라는 과정이 正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時期를 通해 또 學生들은 그들의 研究한 意見을 수간호원에게 주기도 하며 혼자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풀기도 하여 발전하는 것이다.

▲ 수간호원도 상당한 제한을 받고 또 그것을 인정하며 일한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던지 一般的인 原理가 모든 경우에 適合하지 않음을 경험한다. 그 反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수간호원도 이러한 경험을 해 볼 선구자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유의할 점이 많을것이며 또 해소하는 方法을 모색하도록 노력해야 될 艱難을 안다. 그 좋은 方法의 하나로는 정기적으로 그 병실 간호원들과 회합을 가져 몇몇 特定한 환자의 간호에 專門한 研究發表를 하게 하므로서 共

通의인 特殊性을 찾고, 학생들은 각 환자에 필요한 간호를 응용하는 법도 배우고 자득을 반기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도 실습하는데 있어 항상 갈등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환자는 물건과 그 조건 상태 등을 잘 관찰, 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론으로 가르치고,例를 들어 설명하고 또 실습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교육이 아님을 안다. 即 어떤 경우에는 선생이 강의를 하여서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수간호원이 실습을 일일이 보여주고 가르쳐주므로서 더욱 쉽고 능률적일 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는 수간호원은 물론 항상 연구 관찰하여 그의 지식이나 기술이 항상 새롭고 과학적인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때로 수간호원들은 교육방책의 하나로 어떤 지정된 임상간호 연구회의를 지도하는 수가 있는데 이때의 主目的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간호하고 있는 환자들의 당면한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또한 그들이 강의시간에 배운 것과 연결시켜 공부하게 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회의나 교육방법에 익숙치 못한 수간호원은 대개로 좀 교훈적이고, 설교적인 경향으로 흐르기 쉽다. 이는 비록 그가 임상 경험이 많고 각 환자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므로 인해 이러한 회의에 책임을 지게 되었더라도 그는

자기가 실습이론에 대하여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을 때 까지는 교과서나 책에 쓰여져 있는 方法이나 지시에 의존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동안은 학생들은 좀 곤란한 시기를 겪지만 학교에서 필요한 대로 임상교육자를 발견시켜 서로 연구하면서 적절한 方法을 모색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회의나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임상간호의 지식을 나누고 하는 열의를 가진 수간호원은 선생과 협조하면서 만족할만한 회의를 가질 것이다. 가령 학교에서 어떤 간호과 과목을 가르치고 있으며 교수방법도 훌륭하고 학교 방침도 잘 아는 선생이 있다하자. 이런 임상간호선생이 실질적으로 병실에 학생실습을 가르치기 위해 나갔을 경우 그 병실 사정을 잘 모르는 그는 어찌 할 것인가. 설혹 몇 번 나가서 안다고 하여도 학생들과 선생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모든 필요한 상세한 보고를 주고자 하는 수간호원이 있었다면 열마나 쉽고 効果的인 것인지는 常識의인 이야기가 되고 만다. 학생들을 교실에서 가르치고 동시에 갖추어 진 임상간호선생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必要되는 努力과 研究의 結晶이다. 오히려 임상에서 직접 간호하고 있는 분들과 협조하여 서로의 知識과 經驗을 나누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적절하고 훌륭한 환자간호를 하게끔 준비시키고 또

그렇게 하지 할 것이다.

▲ 수간호원은 미래를 보고 오랜 시일을 교육하며 기대한다.

수간호원은 멀 훗날을 보며 교육 한다. 수간호원뿐만 아니라 선생이나 기타 어느 교육자고 간에 우리는 학생들이 그들 자신 직접 실습 경험을 얻은것으로 삼지식이 되기 까지 모든것을 다 한꺼번에 알기를 기대할 순 없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서 필요한 교육과 실습을 남겨두 었다가 조금씩 가로쳐 준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비록 다 가르쳐 주더라도 이는 마치 비옥한 땅에 씨를 뿌림과 같아서 적당한 영양과 기후, 그리고 알맞은 시기가 와야 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이해 하여야 된다는 意味이다. 학생들은 그날 그날에 필요한 것을 습득하기 위한 지도가 必要하다. 그러하므로 그들은 오늘의 實習을 통해 来日의 아지못하는 要求에 應할 수 있도록 창조적이면 진취적이고 또 자기자신이 개척해 발견해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그들의 생애를 간호를 위해 바치겠노라 마음 먹었을때는 이미 興味라는 씨는 뿌려진 것이다. 이제 남는 것은 선생과 수간호원이 如何히 共同으로 研究하여 學生들이 工夫한 것과 飲行하는 俗逕의 實習을 시키며 또 그들로 하여금 훌륭한 간호를 生懾해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造成하면서 教育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것 以外에도 勿論 學校方針이나 病院行政에 다르진 하겠지만 수간호원은 그의 열마련 기술과 환자와의 원만한 對人關係등을 보여주고 暮暗裡에 영향을 주며 또 直接的으로 當面하는 임상간호 문제들을 해결하는 회의도 열어 의견을 교환하며 또 학생들의 실습 성적에 對한 감독과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학생들은 또 머지않아 직업적이고 조직화된 간호실무에 들어가게 된다. 看護란 歷史的으로 더듬어 블 때 單純한 目的에서 出發하였다. 그러나 現今에 와서는 大學教育, 大學院教育, 내지 더 높은 교육을 하고 있음은 간호가 지니고 있는 本質的인 要求가 어느 다른 課目보다 높히 評價되고 必要로 되고 있음을 如實히 證明하고 있다. 이와같이 單純에서 複雜으로 變하고 모든 研究와 科學的인 發展은 모든 간호원들에게 커다란挑戰이 아닐 수 없으니 이력으로서 우리는 本然의 奉仕와 併行하는 热心 있는 탐구에 没入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이 重要的 發展途上에 있는 간호교육을 뒤 살펴볼 때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실습하고 학생들의前途를 격려치 않을 수 없으며 또 여기에 헌신하고 연구하는 여러 선생들과 더욱이 실습교육을 담당하는 수간호원의 重要性을 再認識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